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박현정*, 오재우**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Hyun-jung Park*, Jae woo, Oh**

Dept. of Nursing, Pyeongtaek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 정립을 위해 나아가 간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관성 조사연구로써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3,4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t값,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고, AMOS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0%였고, 간호 전문직관에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53%였다. 결론적으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간호학의 가치를 알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 교육중재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nd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xemplary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is correlational study involved 210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May 30,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 Program 20.0. Also, AMOS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xplained 30% of the variance in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and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nursing professionalism, explaining 53% of the variance in the same. The results show the need for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enhance students' perceived value of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well as for structured and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that consid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Received 20 October 2014, Revised 20 Novem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Jae woo, Oh(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Email: love_token@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적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 결과 꾸준한 내·외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건강관리체계 내에서도 간호사가 환자 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1].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확실한 신념과 태도를 결정하는 전문직관이 보다 견고해지고 있으며, 간호사는 스스로 체계화된 직업의식적 견해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사의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사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 대학생, 신규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절의 전공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전공만족이란 자아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심은숙[3]과 Fetzer[4]은 개인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에서의 전문직 교육에 의해 발달되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태도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과 박연환[5]은 하였다.

전문직 간호는 이론적 간호지식을 기본으로 간호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용중심학문이다[6]. 간호교육은 간호 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7]. 특히 임상실습은 이론교육과 더불어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8],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대학생은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9]. 즉 간호교육의 핵

심요소로서 임상실습 교육은 효과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0].

우리나라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22-24학점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11], 모든 간호대학들이 이 기준으로 실습교과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비중이 대두되면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12].

간호 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 현장이라는 낯선 환경, 실습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과도한 과제, 역할 갈등 및 지식부족,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한계점,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13],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 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9].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살펴본 선행연구에는 박민아[9], 김순례와 이종은[13]등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심은숙[3]은 전공만족도가 진로의식형성과 간호 전문직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정아와 이순희[14]는 자아개념, 직무만족등이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간호 대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정도와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나아갈 간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M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중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4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power 0.95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수가 132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수를 정하였다. 연구대상자 210명중 미비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2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vastva(1991)가 개발하였고 김순례와 이종은(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0.91$ 이었고,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7$ 이었다. 본 도구는 이미 한국에서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2.3.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하혜숙(200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를 이동재(200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으로 선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 0.90$ 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4$ 이었다. 본 도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 전문직관 도구 29문항에서 간호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 본 도구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2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은자 등(2005)의 개발 당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 $\alpha = 0.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4$ 이었다. 본 도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IBM, Americ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하였다. Amos를 이용하여 세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 178명(87.3%), 남자 26명(12.7%), 나이는 22세 이하가 170명(83.3%), 22세 이상이 34명(16.7%), 실습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98명(48.0%), 1년 이상이 106명(52.0%)으로 나타났다. 실습병원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2개 이상 5개미만이 150명(73.5%), 주 실습 지도자는 과목별 지도교수 및 실습조교라는 응답자가 137명(6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26	12.7
	Female	178	87.3
Age(yr)	≥ 22	170	83.3
	< 22	34	16.7
Practice during(year)	< 1	98	48.0
	≥ 1	106	52.0
Number of practice hospital	1	2	1.0
	< 5	150	73.5
	≥ 5	52	25.5
Main practice leader	Preceptor nurse	10	5.1
	Head nurse or charge nurse	35	17.1
	Step nurse	22	10.7
	Subject academic adviser and staff assistant	137	67.1

3.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 정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8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2점, 간호 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 ²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227	.091	-.174	-2.507	.013	0.30
	Clinical Practice Stress	-.240	.072	-.230	-3.360	.001	0.53

Analysis method : Regression analysis

다<Table 2>

<Table 2>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Variable	Min	Max	Mean	SD
Clinical Practice Stress	1.63	4.21	2.80	0.46
Major Satisfaction	1.72	5.00	3.82	0.60
Nursing Professionalism	2.54	5.00	3.91	0.48

3.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1.00		
Major Satisfaction	-0.17★ (p=.013)	1.00	
Nursing Professionalism	-0.23★★★ (p=.001)	0.63★★★ (p=.000)	1.00

Analysis method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5, ★★ p<.01, ★★★ p<.001)

<Table 5> Clinical practice stres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p)	C.R	AVE
stress 1	1.000	0.482			.78	.42
stress 2	1.228	0.621	0.223	5.517(.000)		
stress 3	1.354	0.662	0.238	5.677(.000)		
stress 4	1.053	0.535	0.207	5.098(.000)		
stress 5	1.517	0.696	0.262	5.782(.000)		
stress 6	1.000	0.541			.76	.35
stress 7	1.044	0.589	0.172	6.086(.000)		
stress 8	1.142	0.614	0.183	6.241(.000)		
stress 9	1.279	0.636	0.200	6.378(.000)		
stress 10	1.020	0.550	0.176	5.814(.000)		
stress 11	0.794	0.434	0.162	4.913(.000)		
stress 12	1.000	0.766			.66	.38
stress 13	0.899	0.632	0.127	7.075(.000)		
stress 14	0.767	0.557	0.119	6.467(.000)		
stress 16	1.000	0.518			.73	.47
stress 17	0.988	0.647	0.169	5.835(.000)		
stress 18	1.111	0.647	0.190	5.836(.000)		
stress 19	1.050	0.566	0.193	5.442(.000)		
stress 20	1.000	0.604			.83	.50
stress 21	1.110	0.714	0.144	7.706(.000)		
stress 22	1.350	0.792	0.165	8.176(.000)		
stress 23	1.153	0.663	0.157	7.342(.000)		
stress 24	0.962	0.604	0.140	6.861(.000)		

Analysis method : AMO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6> Major satisfac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p)	C.R	AVE
satisfaction 1	1.000	0.844			.95	.79
satisfaction 2	1.065	0.868	0.067	15.892(.000)		
satisfaction 3	1.118	0.910	0.065	17.264(.000)		
satisfaction 4	1.108	0.876	0.069	16.145(.000)		
satisfaction 5	0.863	0.764	0.067	12.942(.000)		
satisfaction 6	1.000	0.733			.97	.80
satisfaction 7	1.161	0.856	0.093	12.537(.000)		
satisfaction 8	1.143	0.871	0.089	12.768(.000)		
satisfaction 9	1.289	0.874	0.100	12.826(.000)		
satisfaction 10	1.181	0.848	0.095	12.396(.000)		
satisfaction 11	1.240	0.911	0.092	13.421(.000)		
satisfaction 12	1.118	0.846	0.090	12.367(.000)		
satisfaction 13	1.000	0.690			.85	.66
satisfaction 14	1.384	0.762	0.149	9.307(.000)		
satisfaction 15	1.288	0.832	0.131	9.826(.000)		
satisfaction 16	1.000	0.765			.91	.77
satisfaction 17	1.227	0.852	0.098	12.537(.000)		
satisfaction 18	1.251	0.900	0.096	13.058(.000)		

〈Table 7〉 Professionalis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p)	C.R	AVE
professionalism 1	1.000	0.731			.94	.65
professionalism 2	0.915	0.737	0.089	10.269(.000)		
professionalism 3	0.990	0.729	0.097	10.157(.000)		
professionalism 4	0.771	0.526	0.106	7.247(.000)		
professionalism 5	0.858	0.464	0.135	6.363(.000)		
professionalism 6	1.109	0.710	0.112	9.883(.000)		
professionalism 7	1.154	0.712	0.116	9.911(.000)		
professionalism 8	1.032	0.718	0.103	9.994(.000)		
professionalism 9	1.158	0.776	0.107	10.826(.000)		
professionalism 10	1.000	0.638			.91	.59
professionalism 11	1.509	0.727	0.176	8.589(.000)		
professionalism 12	1.474	0.723	0.172	8.552(.000)		
professionalism 13	1.448	0.709	0.172	8.421(.000)		
professionalism 14	1.295	0.753	0.147	8.807(.000)		
professionalism 15	1.030	0.684	0.126	8.189(.000)		
professionalism 17	0.913	0.565	0.130	6.998(.000)		
professionalism 18	1.000	0.791			.87	.78
professionalism 19	0.967	0.730	0.087	11.137(.000)		
professionalism 20	1.000	0.890			.95	.84
professionalism 21	1.078	0.906	0.056	19.354(.000)		
professionalism 22	0.944	0.869	0.053	17.703(.000)		
professionalism 23	0.963	0.772	0.068	14.113(.000)		
professionalism 24	1.000	0.834			.85	.74
professionalism 25	0.936	0.844	0.065	14.515(.000)		

Analysis method : AMO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 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 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0%였고, 간호 전문직관에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53%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과의 정도를 살펴본 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만족 및 간호 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3.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의 확인적 유의분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의 요인구조가 타당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유의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

<Table 6>, <Table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실습 스트레스척도 표준화 계수는 모든 문항에서 0.7이었고, C.R(개념신뢰도)는 문항 12~14(0.6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0.7이상이었으며, AVE(분산추출지수)는 문항 1~5은 0.42, 문항 6~11은 0.35, 문항 12~14는 0.38, 문항 16~19는 0.47, 문항 20~24는 0.50이었다<Table 5>. 전공만족도척도 표준화 계수는 모든 문항에서 0.7이상, C.R(개념신뢰도)는 0.8이상, AVE(분산추출지수)는 0.6이상이었다<Table 6>. 마지막으로 간호 전문직관 척도 표준화 계수는 문항 10, 17(0.5이상)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0.7이상, C.R(개념신뢰도)는 0.8이상, AVE(분산추출지수) 0.5이상으로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과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

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 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평균 평점이 2.8점이었다. 이는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순례와 이종은[13]의 연구결과인 3.33점, 신은경[15]의 연구결과인 3.0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과거보다는 확고한 상태이며, 간호학과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3.82점으로 보통 이상의 전공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시라[16]의 연구에서 3.77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16]로, Barron, West와 Reeves[17]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 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형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이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전공만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3.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시라[16]의 연구 결과인 3.6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과정,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로,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들을 제공한다[18]. 즉 간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개인적 만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개념[19]인 동시에,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성과가 높으며 조직몰입도 높아진다[20]. 간호전문직의 기본가치는 그 전문직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간호사

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 양남영과 문선영[21]의 연구, 이혜숙과 김은주[2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양남영과 문선영[21]은 실습 전 이론 교육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하여 자부심 및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사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 현장에서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임상실습 과정 중에 실습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육체적·정신적 피로감 무력감등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상자로부터의 거부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제한되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김혜숙[8]은 보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0%였고, 간호 전문직관에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설명력 53%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의 가설적 요인구조가 타당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측변수의 모든 문항의 표준화계수 측정값이 0.5이상이었다. CR(개념신뢰도)는 스트레스 문항 12~14문항(0.6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0.7이상, AVE(분산추출지수)는 스트레스 문

항 1~19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0.5이상으로 확인된바 3개 변수의 요인구조 적합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대학생에게 있어서 임상실습은 이론 교육과 더불어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8]로서,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 현장이라는 낯선 환경,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한계점,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간호학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며, 간호 전문직관의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보아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간호학을 선택하고 스스로 가치를 알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 교육중재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및 간호대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과정에서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간호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실습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육체적·정신적 피로감과 무력감등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상자로부터의 거부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제한되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간호학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며, 간호 전문직관에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지적 교육 중재와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및 간호가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대상자가 M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와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가 확인된 바 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적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A. Park, The Portrayal of Nurses in Mass Media : a Content Analysis of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8.
- [2] E. J. Yeun, Y. M. Kown, &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3] E. S. Shim, Gender, Class, and Majo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nd Student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A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 2003.
- [4] S. J. Fetzer, Professional of associate degree nurses: The role of self-actualization. *Nursing Education Perspect*, Vol. 12, No. 3, pp. 139-143. 2003.
- [5] D. J. Oh, C. J. Choi, B. E. Kwon, &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64-72, 2005.
- [6] J. H. Song, &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51-264, 2013.
- [7] N. S. Ha &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1, No. 1, pp. 1-9, 2005.
- [8] 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64-67, 2002.
- [9]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A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 [10] J. Yoon, K. J. Kim, & M. S. Choi, The Effects on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9, No. 2, pp. 273-284, 2013.
- [1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Accreditation concordance(For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program).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
- [12] E. J. Lee, &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9, No. 2, pp. 163-171, 2013.
- [13] S. L. Kim, &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6-106, 2005.
- [14] J. A. Kim, & S. H. Lee, Analysis of Studies on Image of the Nurses Performed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9, No. 2, pp. 199-211, 2003
- [15] E. J. Shi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1.
- [16] S. 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0.
- [17] D. Barron, E. West, &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pp. 46-51. 2007.
- [18] D. Wies, &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 Vol. 32, No. 2, pp. 201-204. 2000.
- [19] D. Adams, & B. K. Miller,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s of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17, No. 4, pp. 203-210. 2001.
- [20] K. Hallin, &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1, pp. 62-70. 2008.
- [21] N. Y. Yang, &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7, No. 2, pp. 216-225, 2011.
- [22] H. S. Lee, & E.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1, pp. 5-13, 2008.
- [23] H. J. Park, & I. S. Jang, Original Articles :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박 현 정(Park, Hyun-jung)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여성건강 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생리학 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 생리학
- E-Mail : hjpark@ptu.ac.kr

오 재 우(Oh, Jae Woo)



- 2000년 2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4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0년 3월 ~ 2012년 11월 : 건양대학 병원 간호사
- 2013년 3월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스트레스
- E-Mail : love_token@hanmail.net